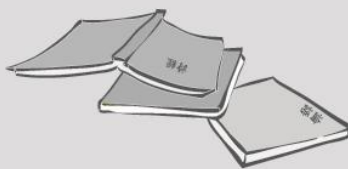


# 中庸

## 2차시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  
우주적 균형을 추구하는 수양의 길

⋮  
1장



言曰 衣錦尙絀 惡其文之著  
 簡而文 溫而理 知遠之近 知風之自  
 無惡於志 君子之所不可及者 其唯人之所不見  
 詩曰 奏假(格)無言 時靡有爭 是故 君子 不賞而民勸 不怒而民威於鈇鉞 詩  
 是故 君子 篤恭而天下平 詩云 予懷明德 不大聲以色 子曰 聲色之於化民  
 上天之載 無聲無臭 至矣 淡而不厭 故 君子 內省不疚

## 2차시

#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 우주적 균형을 추구하는 수양의 길

### 1장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

천명지위성 술성지위도 수도지위교 도야자 불가수유리야 가리

非道也 是故 君子 戒慎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莫見乎隱

비도야 시고 군자 계신희기소부도 공구호기소불문 막현호은

莫顯乎微 故 君子 慎其獨也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막현호미 고 군자 신기독야 희노애락지미발 위지중 발이개중절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위지화 중야자 천하지대본야 화야자 천하지달도야 치중화

天地位焉 萬物育焉

천지위언 만물육언

[번역] 하늘의 내린 명령을 일러 성(본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일러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일러 교(가르침)라 한다. 도라는 것은 잠깐이라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이 때문에 군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계하고 삼가며 들리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한다. 어두운 것보다 드러나는 것이 없으며, 희미한 것보다 또렷한 것이 없다. 그 때문에 군자는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 기뻐함과 성냄과 슬퍼함과 즐거움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일러 중이라 하고, 나타났는데도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일러 화라 하니, 중이라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근본이고 화라는 것은 천하 어디에나 통하는 도리이다. 중과 화를 극진히 하면 천지가 제 자리를 지키며, 만물이 길러진다.

---



---



---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道也者 不可須臾  
離也 可離 非道也 是故 君子 戒慎乎其所不睹 恐懼乎  
其所不聞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 君子 慎其獨也 喜怒  
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  
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  
育焉

A decorative rectangular border with a repeating geometric pattern, enclosing a writing area with three horizontal lines.